

# “다양한 장르의 기법·표현 뽐낸 작품 많아”

## 제41회 무등미술대전 수상작 발표



제41회 무등미술대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한국화 부문 김서영 작 '오늘도 영원히 내일에게'.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 제공

김서영 '오늘도...' 장관상 영예 문인화 문연봉 등 8명 대상 수상 전국 1944점 출품...역대 두번째 17일 비엔날레전시관서 시상식 17-21일 같은 장소서 입상작 전시

전국 미술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며 40년간 참신하고 역량 있는 화가를 발굴해 온 무등미술대전의 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화 부문 김서영 작가의 '오늘도 영원히 내일에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6일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제41회 무등미술대전 심사가 지난 3일 광주비엔날레관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전국에서 1944점의 작품이 출품돼 무등미술대전을 향한 미술계의 뜨거운 관심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9점 증가한 수치이

며 지난 제39회 무등미술대전(2071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출품작 기록이다.

이 중 입상한 작품은 총 1096점으로 문화체육부장관상 1점, 대상 8점, 우수상 26점, 특선 364점, 입선 697점이 선정됐다. 판화 부문에서는 대상 작품이 선정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의 영예는 대전의 김서영 작가에게 돌아갔다. 김 작가는 한국화 부문 '오늘도 영원히 내일에게'로 작품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부문별 대상은 △문인화=문연봉(광주) '만다라' △서양화=이주영(전북 순창) '작업' △수채화=채호산(목포) '섬마을' △조각=배서현(대전) '여름을 회상하며' △공예(도자)=이준범(경기 여주) '웃침금박 진사향아리' △서예(한문)=강용우(목포) '이백 선생시' △멋글씨=이재권(서울) '독도' △사진=정나겸(경북 경산) '사람들' 등이 선정됐다.

부문별 우수상은 △한국화=노승희·김소현 △문인화=최부이·손영경 △서양화=김은영·서효림 △수채화=김경옥·권혜경 △판화=이은미·김상진 △조각=이정아 △공예=홍영신(금속)·배상만(목질)·최성현(서각)·차준용(섬유)·이정희(섬유) △서예=문계남(한글)·김서정(한문)·김가희(현대) △멋글씨=이주희·손숙 △사진=정재준·김현·김대수·조희숙·김경애 등이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제41회 무등미술대전의 출품작들이 뛰어난 독창성과 창의성을 보여줬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수묵, 산수화, 채색화, 비구상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작품들이 출품되며 다양성 또한 제고했다는 평가다.

올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제주 출신의 김남규 사진작가는 "이번 무등미술대전은 다양한 기법과 표현이 어우러진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 특히 작품마다 독창성과 창의성이 돋보였다"며 "현대적인 경향을

반영해 국제적인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독특한 기량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김 심사위원장은 "모든 심사위원이 각 작품의 독창성과 화면 구성의 조화, 균형 등을 세심하게 살펴본 뒤 평가했다"며 "창작의 수고와 고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 점 한 점 세심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된 것은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노고와 열정 덕분"이라며 "무등미술대전이 41년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통해 위상을 높여왔다는 게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출품 수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입상작 전시는 17일부터 2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난 3일 ACC 국제회의실에서 'ACC-지역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ACC 제공

## 광주의 4월,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물든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당신곁에’ ‘산에는 꽃 피네’ 주제로 10회 전통무용·일렉트로닉 등 다채

광주 도심의 4월이 다채로운 문화 공연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광주문화재단은 6일 이달 '찾아가는 문화공연 당신곁에' 공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산에는 꽃 피네'를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며 일렉트로닉

팝, 전통무용, 포크송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된다. 특히 창극단·교향악단·관현악단 등의 공연도 야외에서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의 발길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광주 동구 ACC상상마당에서 밴드 원보틀이 '북마크 온 원보틀' 공연,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외씨버선' 이대중음악과 국악을 접목한 '이 순간 AT THE MOMENT' 공연을 선보였고 같은날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광주시립창극단의 '풍류 in 광주' 공연이 펼쳐지며

호응을 얻었다.

오는 12일에는 오후 3시부터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이 서구 상무시민공원을 무대로 꾸미며 19일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국악 미니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멜로디스'가 선보이는 성악과 현대적 보컬이 어우러진 '낭만에 대하여' 공연은 19일 열린다. 이어 26일 서구와 북구에서 '산울림예술촌'과 타악그룹 '열쑈'가 각각 공연을 진행한다. **박찬 기자**

## “이제 ACC가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할 차례”

지난 3일 'ACC-지역 협력 회의'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시동

올해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호남권역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ACC는 지난 3일 ACC 국제회의실에서 'ACC-지역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시, 공연, 문학, 철학, 인문, 관광, 경제, 건축, 언론 등 지역 각계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지역협력TF) 2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문화예술 융복합 협의체'를 결성했다. 협의체 구성원들은 3일 열린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마다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현안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역 작가 특별전'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콘텐츠 창작·제작 예산과 전시장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ACC는 '대형 지역 축제 행사 협력'을 통해 지역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축제 담당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 기자**

##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 탐구·체험할 전시 개최

특별전 '지구 너머의 세계'

6월29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인류가 우주를 탐구해 온 여정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전시가 찾아온다.

국립광주과학관은 6일 우주과학 특별전 '지구 너머의 세계'를 8일부터 오는 6월2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과천과학관이 지난해 브랜드기획전으로 개최한 '보이지 않는 우주'를 순회전시로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는 △보이는 빛/보이지 않는 빛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

놀이터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보이는 빛/보이지 않는 빛'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빛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알아본다. 더불어 빛을 관측하는 주요 망원경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블랙홀, 암흑물질, 중성미자 등 6개 주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해 왔는지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우주놀이터'는 우주 스케치 월, 블럭 우주선 조립체험, 우주 직소 퍼즐 등 우주와 관련된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에서는 심우주에서 우리가 사는 태양계까지 다양한 우주로의 도전을 연출한 전시품을 선보인다. 보이저호 모형을 포함해 골든레코드 자료와 내용들을 탐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다.

문기현 국립광주과학관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우주 개발과 기술 등에 대해 탐구하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주과학 특별전 '지구 너머의 세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 “전남서 문화 기획할 청년 모이세요”

'사회적 가치 지향 시즌3' 공모 23일까지 청년 문화 활동가 모집

전남문화재단은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가치 지향 시즌3'에 참여할 청년 활동가를 모집한다.

6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지향'은 청년 문화기획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시작돼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 내재된 각각의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문제 완화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모는 전남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인·그룹별 300~500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차

등 지원하고 월 활동비 160만원을 5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주제는 △전남 22개 시군이나 295개 읍·면·동 또는 해당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지역 문제 △생태위기, 지역소멸 등 국내·외로 이슈인 ESG 관련 주제 △이웃 간 소통단절 해결, 학교폭력 예방, 야생동물 보호, 다문화가정 자녀 차별 예방방안 마련, 귀촌인의 지역 적응 도모 등이다.

사업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찬 기자**

